

각각, UN에서 전시되다

현지인 뜨거운 관심,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영인본 증정



개막식에서 남상우 청주시장(맨 왼쪽)과 반기문 UN사무총장부인 유순택 (맨 왼쪽으로부터 네번째) 여사

지난 7월 1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 1층 로비에서 세계기록유산 직지 전시 개막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인류 문명사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 금속활자를 대한민국이 발명했다는 대표적인 증거물인 현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의 문화사적 가치를 전 세계 언론과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날 개막식에는 각국 유엔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는데, 행사를 하면서 많은 외국 언론과 외국인들의 끊임없는 질문과 인터뷰, 인쇄체험 참여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외국인들이 직접 시연한 한지에 남상우 청주시장이 일일이 서명을 해 주었는데, 서명을 받고자 길게 줄이 늘어서는 등 전시효과가 극대화 되었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40일간 계속된 금번 전시회는 한국의 문화적 자긍심과 수월성을 알리는 동시에 청주시의 위상을 전 세계에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예방, 직지영인본 증정

행사단 일행은 17일 저녁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공관에서 1시간여 동안 만나 총장의 친필 서명이 된 직지영인본 100부를 전달하고 각국의 내외빈용 선물로 활용할 것을 건의했으며, 오는 9월 4일 직지사 시상식에 사무총장의 축하 영상메세지를 요청하였는데 사무총장이 흔쾌히 승낙해 직지상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7월 20일에는 반기문 총장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직접 인쇄 체험을 하였는데, 많은 언론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직지와 고인쇄문화에 대하여 새로운 관심과 흥미를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방문, 직지 미국 교과서 등재 협조

7월 18일에는 코리아소사이어티를 방문 프레드 캐리어(Fred Carriere)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세계 각국에 잘못 소개되고 있는 직지에 대한 오류 시정과 함께 직지가 세계최고(最古) 금속활자 책으로 미국 교과서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부회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약속하였다.

그밖에도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 뉴욕한국문화원을 방문, 기관 내 직지 상설 전시와 미국 내에 적극적인 직지 홍보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남상우 청주시장은 뉴욕한인회 방문시 이세목 한인회장으로부터 올 10월 맨하탄에서 펼쳐지는 코리아 퍼레이드 행사시 직지를 홍보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즉석에서 대형 플래카드를 제작 보내주겠다고 약속, 맨하탄 거리에서의 직지홍보가 기대된다. ☞



사진 위에서부터.
반기문 UN사무총장과 공관에서 악수하고 있는 남상우 청주시장.
인쇄 체험을 하는 반기문총장과 남상우청주시장, 남동우청주시회의회장.
코리아소사이어티를 방문해 직지영인본을 전달했다.
뉴욕한인회를 방문해 직지를 홍보했다.